

◆ 북미

- 미국,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살인을 저지른 70대 노인에 무기징역 선고
- 미국 양당 대선후보, 건강보험체계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해법 제시

◆ 유럽

- 유럽인 건강보험 카드, 유럽여행 시 반드시 지참하세요!
- EU의 2009년 건물에너지 절약 규범(EPBD) 시행에 따른 에너지 관련 손해사정인 수요 증가

◆ 일본

- 다이이치생명보험, 태국 생보사에 100억엔 출자
- 일본손보협회, 이와테 내륙지진 지진보험금 50억엔 예상

◆ 중국

- 중국 보감위, 직접관리 지양하고 시장자율 강조
- 상반기 중국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급증, 자산증가율은 하락

◆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

【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미국,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살인을 저지른 70대 노인에 무기징역 선고

-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자를 살해한 혐의로 두 명의 70대 노인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함.
- 이번 사건의 피고는 77세인 Helen Golay 와 75세인 Olga Rutterschmidt로 고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으로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음.
- 이들은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거처를 제공해주겠다고 유혹한 후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, 생명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2년간 노숙자를 돌봐준 후 살해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함.
- 첫 번째 희생자인 Paul Vados는 1999년 할리우드의 뒷골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두 피고인은 60만 달러의 보험금을 챙김.
- 두 번째 희생자인 McDavid는 2005년 Vados와 같은 상해를 입고 숨졌으며 McDavid를 피보험자로 무려 24건 이상의 생명보험을 가입해 놓았던 두 피고인은 220만 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함.
- 당국은 두 사건의 보험금 수령자가 같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고 두 피고인을 조사하였으며 McDavid 사망 당시 Golay가 몰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 안에서 McDavid의 DNA를 발견함.
- 두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항소를 원한다고 밝힘.
- 이 사건의 검사는 물질적 이득을 위해 계획적으로 두 명이나 살해한 죄가 크지만 두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사형을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밝힘.

(Los Angeles Times, 7/16)

□ 미국 양당 대선후보, 건강보험체계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해법 제시

- 미 대선공약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 문제에 대해 각 당 대선후보인 오바마 후보와 메케인 후보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.
- 보험 미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재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문제가 있으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두 후보는 같은 의견을 나타냄.
- 그러나 그 해법에 대해서는 주로 고용주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가 약화시킬 것인가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함.
- 공화당 메케인 후보는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고용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대신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인당 2,500 달러 혹은 한 가족당 5,000달러의 세금 공제(tax credit)를 제공하는 안을 제시함.
- 또한 메케인 후보는 개인 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해 주 경계(state line)를 넘어 보험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사에 대한 소송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함.
- 그러나 이 공약의 반대자들은 건강이 좋지 않거나 고령인 사람들의 경우 개인건강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.
-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되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, 보조금 규모는 연간 500~60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됨.
- 또한 오바마 후보는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,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중 일부를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함으로써 종업원에 대한 건강보험 제공 확대를 유도할 계획임.
-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렇게 될 경우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.

(Reuters 외, 7/15)

【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유럽인 건강보험 카드, 유럽여행 시 반드시 지참하세요!

- 유럽인 건강보험 카드(EHIC: European Health Insurance Card)* 개시 후 4년이 지난 지금 현재 가입자 수는 1억7천3백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, 31개의 유럽국가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치료에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* 27개의 EU국가를 비롯한 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을 포함하고 있으며, 이들 31개국 중 어느 국가에서나 잠시 여행 중에 필요 여부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.

- 각 국의 언어가 서로 다르고,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카드를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통된 디자인으로 만들어 제공함.
- EHIC는 유럽인의 건강보험 카드로서 일부 지역에서는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며, 유럽경제지역(EEV)이나 스위스를 방문 시 그 나라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보장을 해주는 카드임.
- 또한, EHIC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도 해당 지역의 환자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, 치료비용은 해당 질병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를 보험에 적용받게 될 것임.
- 이는 유럽 각 국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써, 모든 치료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, 상당부분을 감당해주는 건강진료 카드로 볼 수 있음.
- 그러나 이러한 건강보험 카드가 여행자보험의 부수적인 역할을 대신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, 공영건강보험 제도의 틀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함.
- 현재 EHIC를 보유한 사람은 유럽 인구의 36%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국가별로 보유 비중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.
- 이탈리아를 비롯한 오스트리아, 리히텐슈타인의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, 불가리아, 루마니아, 그리스, 폴란드 등은 5%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.

<유럽 건강보험 카드 보유자 수>

국가	카드 발행 수	전체 인구 대비 EHIC 보유자 비중(%)
벨기에	1,907,993	18
불가리아	104,871	1
체코	8,400,000	82
덴마크	849,903	16
독일	45,000,000	55
에스토니아	99,590	8
그리스	104,326	1
스페인	1,729,962	4
프랑스	4,631,709	8
아일랜드	1,066,476	25
이탈리아	56,981,277	97
사이프러스	32,077	4
라트비아	32,884	1
리투아니아	142,002	4
룩셈부르크	401,421	80
헝가리	431,089	4
몰타	120,781	30
네덜란드	768,878	5
오스트리아	7,967,193	96
폴란드	555,761	1
포르투갈	667,827	6
루마니아	55,000	0
슬로베니아	251,084	13
슬로바키아	799,575	15
스웨덴	2,900,000	32
핀란드	,361,378	7
영국	27,500,000	46
스위스	7,000,000	96
아이슬란드	78,770	39
리히텐슈타인	35,317	99
노르웨이	2,021,197	46
합 계	172,998,341	36

(Traveldailynews, 7/16)

□ EU의 2009년 건물에너지 절약 규범(EPBD) 시행에 따른 에너지 관련 손해사정인 수요 증가

- EU는 오는 200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‘건물에너지절약규범(EPBD: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)’을 마련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에 보험회사들은 에너지 관련 공인된 손해사정인이 상당수가 부족하다고 이를 지적하고 있음.
- 영국의 경우, 2008년 10월부터 건물에너지등급제 시행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“에너지성능인증서(EPC: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)”가 필수적이며, 상업용 건물의 매매, 임대 시에도 이를 의무화하고 있음.
- 유럽의 EPBD는 3단계의 철저한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, 이는 건물 설계 단계(Design rating)에서부터 준공 단계(Asset rating)를 거쳐 운영 단계(Operational rating)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함.
- 또한, 인증서에는 건물 전체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,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담아야 하며, 4월까지의 1000m²이상 공공건물에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, 7월까지의 2500m²이상 건물에도 적용된다고 전함.
- 영국은 건물 에너지 관련 모든 인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여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에너지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강조하는 규제 강화를 보이고 있음.
- 알리안츠 기술사업부의 특수서비스 팀장인 Steve Ford에 따르면, 이와 같이 현재 에너지 관련 손해사정인 수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며, 당장은 공인된 손해사정인 수가 약 70~10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함.
- 그러나, 향후 이러한 법안이 일반 주택에도 적용되는 등 시장이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, 에너지 관련 손해사정인도 상당수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.

(InsuranceTimes, 7/17)

【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다이이치생명보험, 태국 생보사에 100억엔 출자

- 다이이치(第一)생명보험은 7월 16일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태국의 보험 대기업인 오션라이프(Ocean Life Insurance)에 약 100억엔을 출자한다고 발표함.
- 다이이치생명은 개인보험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시장 확대가 전망되는 태국 생명보험시장 기반강화를 목표로 출자를 결정함.
- 다이이치생명은 오션라이프의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출자 비율을 24%로 높이고, 동시에 오션라이프에 이사를 1명 파견하기로 함.
- 또한 개인보험과 자산운용, IT 등의 경영 노하우를 오션라이프에 제공함과 동시에 직원의 파견이나 연수 등 인적 교류도 진행할 예정임.
- 다이이치생명과 오션라이프는 2006년에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, 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의 판매에 협력하고 있음.
- 오션라이프는 태국 생명보험 업계 7위로 2007년 수입보험료는 286억엔을 시현하였으며, 소액·무진단 개인형 양로보험 판매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임.

(FujiSankei Business I, 7/26)

□ 일본손해보험회, 이와테 내륙지진 지진보험금 50억엔 예상

- 일본손해보험회(손해보합회)는 지난 6월 14일에 발생한 일본 동북부 이와테·미야기 내륙지역 지진 피해에 대한 지진보험 보험금 지급 예상액이 18개사에서 총 50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.
- 이는 지진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 기준으로 역대 8위의 수준이며, 2000년 10월에 발생한 뫼토리현 서부 지진의 보험금 지급액 29억엔을 상회하는 지급액임.
- 보험금 지급 예상액의 지역별 내역은 미야기현에서 40억 2800만엔, 이와테현에서 7억 7300만엔, 기타 지역이 1억 5600만엔임.
- 지진 발생 직후 손해보합회(손해보합회)는 보험금 지급액을 작년 7월에 발생한 니가타현 나카고에 해양지진 같은 수준인 78억엔 정도로 예측한 바 있으나 이번에 발표한 예상액은 약 3분의 2의 수준으로 축소됨.
- 지진의 규모가 7.2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액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 손해보합회사들은 “지진이 산악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주택파손 등의 피해가 도시지역 지진에 비해 적었다”(미츠이스미토모 해상)고 설명함.

<일본 역대 지진 보험금 지급 순위>

순위	지진명 (발생연도)	지급보험금액
1	한신·아와지 대지진(1995년)	783억엔
2	게이요 지진(2001년)	169억엔
3	후쿠오카현 해양지진(2005년)	168억엔
4	니가타현 나카고에 지진(2004년)	149억엔
5	니가타현 나카고에 해양 지진(2007년)	81억엔
6	후쿠오카현 서해 지진(2005년)	63억엔
7	토카치해양 지진(2003년)	60억엔
8	이와테·미야기 내륙 지진(2007년)	50억엔
9	뫼토리현 서부 지진(2000년)	29억엔
10	노토반도 지진(2007년)	27억엔

(FujiSankei Business I, 7/18)

【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중국 보감위, 직접관리 지양하고 시장자율 강조

- 중국 보감위는 지난 7.15(화) 베이징(北京)에서 개최된 전국보험감독관리 업무회의에서 편법판매, 보험금지급 지연 등과 같이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혀온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.
- 이번에 보감위가 내 놓은 대책의 골자는 '자율'과 '효율'로 시장을 관리한다는 것임.
- 보감위는 과거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던 '허가제' 방식의 감독제도를 점진적으로 버리고 행정수단을 활용한 시장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.
- 보감위 주석 우딩푸(吳定富)는 "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이 온전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이 시장을 직접 통제하기보다는 자율에 의해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."고 전함.
- 또한 보감위가 '효율'을 강조함으로써 과거 수입보험료 규모로 보험회사 순위를 결정하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, 보감위 관계자는 "앞으로 관리감독업무는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수요를 얼마만큼 충족시켰으며, 소비자의 권익을 얼마나 철저히 보호해 주었는지를 평가하게 될 것"이라고 전했다.
- 그 동안 수입보험료 규모로 회사를 평가함으로써 경영자는 부실계약을 양산하는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후환을 안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임.

(금융시보, 7/16)

□ 상반기 중국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급증, 자산증가율은 하락

- 지난 7.16(수) 중국 보감위 발표자료에 따르면, 금년 상반기 중국 보험업계가 거수한 수입보험료는 총 5,61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업종별로는 생명보험이 4,319억 위안으로 64%나 급증했고, 손해보험은 1,299억 위안으로 20%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, 수입보험료 증가와 함께 지급보험금 역시 1,54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1% 증가하였음.
- 주요 보험회사별 실적에 있어서는 중국생명보험그룹(中國人壽保險集團)이 1,955억 위안(점유율 34.8%, 생명보험 1,930억 위안, 손해보험 25억 위안)을 거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46.8% 증가하였으며, 중국태평양보험그룹(中國太保集團)은 546억 위안(점유율 9.7%, 생명보험 389억 위안, 손해보험 157억 위안)을 거수하면서 생보와 손보 영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%, 2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중국태평양보험 그룹은 상반기 수입보험료가 급증하기는 했지만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높아지고 투자형 보험상품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단기계약 위험도 더불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
- 중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2/4분기 내내 동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1/4분기 자산운용 수익률이 1.2%로 급락하면서 보험업계 자산은 총 3조 23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,200억 위안(4.84%) 증가하는 데 그쳤음.
- 최근 6월 한 달 동안 173억 위안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이 이를 더욱 염려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전함.

(21세기경제보도, 7/17)

【 Financial Key Indicators 】

구분		07년말	08.7.11(금)	08.7.18(금)	전주대비
금리 (%)	韓 국고채(3년)	5.74	6.15	5.97	-0.18
	美 10년국채	4.03	3.94	4.08	0.14
	英 10년국채	4.51	4.91	5.03	0.12
	日 10년국채	1.51	1.60	1.58	-0.02
주가	韓 KOSPI	1,897.13	1,567.51	1,509.99	-3.7%
	韓 KOSDAQ	704.23	542.96	522.53	-3.8%
	美 DJIA	13,264.82	11,100.54	11,496.57	3.6%
	美 Nasdaq	2,652.28	2,239.08	2,282.78	2.0%
	英 FTSE100	6,456.90	5,261.60	5,376.40	2.2%
	獨 DAX30	8,067.32	6,153.30	6,382.65	3.7%
	佛 CAC40	5,614.08	4,100.64	4,299.36	4.8%
	日 Nikkei225	15,307.78	13,039.69	12,803.70	-1.8%
	中 상해종합	5,261.56	2,856.63	2,778.37	-2.7%
	대만 가권	8,506.28	7,244.76	6,815.32	-5.9%
	홍콩 항셱	27,812.65	22,184.55	21,874.19	-1.4%
환율	원/달러	938.2	1,002.80	1,013.90	11.10
	원/100엔	833.33	933.94	950.85	16.91
	엔/달러	112.58	105.94	106.70	0.76
	달러/유로	1.4722	1.5915	1.5853	-0.01
	위안/달러	7.3041	6.8340	6.8209	-0.01